

## 언약으로 살아야 합니다. (창세기 32:24-32)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는 언약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이다. 하나님이 씨름하는 중에 야곱을 한 대 쳤다. 정신을 차리라는 것이다. 성도가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언약으로 살면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렇게 씨름을 해야 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우리가 언약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란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원죄 때문이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때는 항상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제대로 문제가 해결된다. 그때 역사했던 사단이 근본 원인이다. 말로만 듣는게 아니라 진짜 들어와서 그렇다고 발견이 되어야 한다. 그 때부터 우리가 잡은 그리스도가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다. 원인이 사단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셨다. 예수님이 하실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대신 사역을 하고 계시다. 이것이 언약이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다.

기도는 이 언약을 누리는 것이다. 원죄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가셨다. 기도하는 이 언약을 누리기 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막 기도하는게 아니다. 밤새 씨름하는게 아니라 언약을 누리는 것이다. 이것이 철야기도이다. 철야기도를 할 필요 없고 언약을 누리면 그냥 저절로 응답이 오는 것이다. 우리에게 오는 모든 일은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다.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가 문제인 것이다.

기도의 뿌리는 복음이다. 복음이 없는 기도는 이방인 기도이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복음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이 복음이 정확히 이해되고 언약이 기본이 된 그 기도를 말하는 것이다. 기도의 힘은 복음에 있고 언약에 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중에 대부분 복음을 잘 몰라서 잘못된 다른 기도를 사실 많이 하고 있다. 구원 받은 하나님 자녀인데도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 그 복음을 우리가 누리면 우리의 기도에도 하나님의 권세가 임한다. 우리가 기도를 누리고 할 때 성상위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가 오면 그 문제가 바뀌어 응답이 다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세이다. 문제는 우리가 언약으로 살지 않고 기도도 언약이 안되니까 문제가 역전이 안되고 남아 있어서 오늘 씨름하는 야곱같이 사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다. 모든 문제를 응답이 되게 할수 있는 권세가 우리의 기도 안에 있는 데 그것이 바로 복음을 누리는 기도이다. 왜냐하면 이 권세는 복음 안에 있지 우리의 기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그래야 창세기 3장의 저주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기도한다고 저주에서 나오는게 아니라 기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려야 나오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그 저주에서 나오는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약속대로 다 하신다. 그리고 절대 그 약속이 바뀌지않는다. 참 감사한 일이다.

그래서 기도의 기능은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화 되게 하는 도구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것이 방법이고 내용은 복음이다. 언약을 고백하고 각인하고 누리고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 개인 묵상 기도이다. 묵상이라는 것은 조용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해 보는 것이다. 기도 시간에 기도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그리고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 너무 바빠서 기도로 바로 들어간다. 그 앞에 기도하기 전에 그리스도 한번 생각하는 여유가 없는 것이다. 이것이 영적 문제이다. 기도가 정말로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누리고 그리스도를 인해 감사하는 그런 시간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조용하게 약속을 생각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심는 것이다. 이 영적인 작업이 최고로 중요하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고 매일 하면 별거 아닌것처럼 느껴질수도 있다. 그러나 이 방법 외에는 모든 문제 해결 되지 않는다. 인생문제 정복하는 것 불가능하다. 우리 인생 정복해야 한다. 문제를 정복해야지, 매일 문제에 눌려서 살수는 없다.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영적 작업 없으면 절대 문제를 정복 못한다. 문제를 정복한 사람은 미래를 정복할 수 있다. 미리 알고, 미리 잡은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오직

그리스도 누리는 자에게 오는 것이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다. 근본 기초가 바로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영적 작업을 지속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을 하면 반드시 문제가 정복된다. 이것 말고는 문제나 인생 정복할 길이 없는데 이것을 하면 반드시 정복하는 날이 온다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약속이므로 이 길을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매일 하나님과 씨름해야 한다. 하나님은 야곱보고 너를 바꾸라고 하였다. 야곱은 나를 바꿀 생각 없고 응답만 달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갈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틀릴 리가 없기 때문이다. 언약 안에 들어가면 되는데 거긴 안들어가고 응답만 받으려는 것이다. 이것은 틀린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많은 증거를 나열한 것이 성경이다. 그리고 이렇게만 하면 무조건 된다는 증거를 주는 것이 성경이다. 그리고 이것을 누린 대표적 인물들이 렘넬 7명이다. 오늘도 다시 이 언약을 마음에 심기 바란다.

다른 것은 없다. 그건 속은 것이다. 다른 것은 없고 그리스도가 끝이다. 더 이상 없다. 여기에 답이 나와야 한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일 시간 정해놓고 이 작업을 계속 하는 것이다. 답은 이거 하나 뿐이니까. 그리고 되지도 않는데 계속 해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되기 때문이다. 뒤돌아 보면 분명히 조금씩이라도 되고 있다. 언약으로 살아야 한다. 너무나 당연하다. 잊어버리지 말고 한주간 내내 기억하기 바란다. 그러면 가진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것이다. 하나님 약속이다. 언약 없이 문제만 해결해달라는 것이 야곱이다.

### 1. 언약으로 살아야 한다.

오늘 본문은 축복해달라고 씨름하던 야곱을 하나님이 한 대 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걸 안해서 그렇다. 하나님이 자기 언약 백성을 치셨다면 거기에는 중대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 유없이 우리를 치시지 않는다. 우리는 이것을 확실히 알고 가야 한다. 그리고 고쳐지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고칠게 없지만 우리는 고칠게 너무 많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야곱이 언약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언약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이 치신 것이다.

언약의 백성은 반드시 언약으로 살아야 한다. 그것이 답이고 완전한 방법이다. 그런데 자꾸 자기 열심과 수단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신차리라고 한 대 친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돌아서라는 것이다. 왜 비굴하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느냐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라는 것이다. 너는 에서에게 굽실거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니가 만일 언약을 잡고 있으면 내가 해결할텐데 왜 너는 니가 해결하려고 하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니 수준으로 니가 사단을 어떻게 이기느냐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려는 것이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야곱은 출발부터가 문제였다. 자신에게 이미 장자권이 와 있음을 몰랐던 것이다. 안 믿었거나 몰랐거나 둘중 하나이다. 그것 때문에 괜히 쓸데 없는 짓을 한 것이다. 팔죽으로 장자권을 사고 팔고 할 수가 있는 것인가? 말도 안된다. 에서에게 맹세도 시켰는데 맹세한다고 장자권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아버지에게 안수기도 받으려고 속였다. 아무리 이삭이라도 사람의 안수기도가 창세전의 하나님의 결정을 뒤집을 수가 있는가? 절대 없다. 그런데 야곱은 이런 중요한 영적 원리를 몰랐다. 모르고 맹세하면 될 줄 알고 이런 수준으로 산 것이다. 눈이 어두워도 너무 어두웠던 것이다. 그러니까 쓸데 없는 짓을 하다가 형과 원수가 돼서 멀리 도망가서 20년이나 살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400명 군사를 데리고 오는 것이다. 난리 났다. 야곱은 아무리 싸워봐야 못 이긴다. 그래서 오늘 밤에 씨름을 하게 된 것이다. 언약으로 있었으면 그 동안 20년이나 되었는데 왜 씨름을 하겠는가?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병이 치유가 안 된 것이다. 양과 소와 염소는 떼를 이루고 거부가 되었다. 그러나 영적 상태는 그대로였던 것이다. 그 연장으로 오늘 씨름이 일어난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것은 굉장한 병에 걸린 것이다. 말이 안되는 것이다. 하나님하고 직통이 되어야지 왜 갈등이 생기는가? 자기가 안 보이니까 매일 축복해달라고만 하는 것이다. 이 자체가 야곱이 이미 다른 곳에 있다는 증거이다. 하나님 안에 있었으면 씨름이 일어날 리가 없다. 그것도 한시간이 아니라 밤 새도록 씨름한 것이다. 철야기도를 했다는 것이다. 만일 언약으로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면 왜 철야기도가 필요한가?

우리가 아는 전쟁고아 모아서 사역한 영국의 밀러를 알 것이다. 어느날 친구가 거기 방문을 했는데 내일 아이들이 3천명이나 되는데 아이들 먹을 밥이 없다고 기도하러 가자고 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 건물 지하에 가서 기도를 했다. 이 친구는 밤새 기도하려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갔는데, 물러는 기도하는데 '내일 아침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밥을 주세요. 아멘'하고 일어선 것이다. 그리고 친구에게 가자고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친구가 눈이 멀뚱멀뚱한 것이다. 밤새 기도해야 되는데 간단히 기도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 정도로 응답 받았으면 언약 기도가 되어야 한다. 기도가 언약이 되어야지 축복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24시 기도, 하나님 누리는 기도가 되어야지 아직도 축복을 달라고 기도해서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밤새도록 씨름한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와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 만일 야곱이 언약의 사람이 되고 언약으로 사는 사람이었으면 밤새도록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면서도 자신을 바꿀 생각은 전혀 없고 축복만 받으려고 한 것이다. 그러니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너를 바꾸라고 하는데.. 이것이 밤새도록 싸우한 내용이다. 하나님은 너를 바꿔라. 야곱은 그거 말고 축복을 달라는 것이었다. 야곱은 이미 응답을 많이 받았다. 거부가 될 정도로 많은 축복 받았다. 외삼촌 집에서 일할 때 자기 몫을 정해 주는데 얼룩진 것이 너의 것이라 하니 양이 새끼 낳 때 얼룩진 것들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 외삼촌이 자기가 망하게 생겨서 이제 바꿔서 이제는 검은 것이나 흰 것이 니것이라고 하니 그 때부터는 또 검은 것이나 흰 것만 새끼가 나는 것이다. 나중에 보면 외삼촌이 이 것을 10번이나 바꿨다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이다. 그 때에 양들이 와서 교미할 때 나무 벗겨서 먹었다는 것이다. 인간적인 머리가 좋은 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부자가 되고 아이들도 낳고 복을 받았다. 그런데 아직도 응답이 양에 차지 않는 것이다. 응답이 차지 않는게 아니라 언약이 차지 않는 것이다.

응답 많은 데도 언약이 아직 내 마음에 충분하지 않은 것이다. 마음에 언약을 포함한 모든 것이 충분해야 되는데 그게 안되는 것이다. 아직 언약으로 답이 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맘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가야 된다는 거 알고 오늘도 기도해야 한다. 거기에 도달하는 답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를 가장 기본으로 해야 된다. 언제 될지 모르지만 답을 누리는 길은 이거뿐이니 이거 하면서 언약으로 충분한 사람 되어야 한다. 첫째는 내 마음에 충분하고 든든하고 응답도 많이 일어나면 그래야 증인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안되니까 불안하고 방황하는 것이다. 야곱의 경우 이정도면 언약기도로 끝내야 되는데 무엇이 부족하겠는가? 이정도 되면 24시 감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면 안되는 것이다.

언약이 답이 나서 그것이 우리안에 충만하고 충분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미래에 대한 불안 없어진다. 야곱은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에서를 만나는 것이 굉장히 불안했다. 미래가 불안하다는 것 아닌가. 형을 만나면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라는 믿음보다도 불안이 더 큰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알아야 한다. 언약이 무엇인가? 언약, 그리스도가 내게 무엇인지 질문해야 한다. 언약은 답이다.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한,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다. 원죄 때문에 일어난 모든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이다. 하나님은 이 언약으로 답을 주셨다. 다른 것을 주신 적이 없다. 이것 하나로 충분하다. 사단에게 원죄를 당해서 아담이 굉장히 당황했을 것이다. 자기가 원죄를 지었지만 사단에게 당한 것을 안 것이다. 그래서 답을 창세기 3:15 답을 준 것이다. 답은 여인의 후손으로 사단을 죽일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완전한 답이다. 다른 것이 필요없는.. 다른 것이 있으면 오히려 방해가 되는 유일한 답이다. 이 답으로 끝까지 가야 된다는 발견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결심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뜻을 정해야 한다. 나는 죽어도 이 답으로 끝까지 간다. 이 뜻을 정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정해야 할 뜻이 많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근본 뜻이다. 나는 이 답으로 끝까지 간다. 내 인생 끝까지 가고 세계 끝까지 가도 무조건 이거 하나로만 간다.

야곱은 언약을 알고 있었을수도 있을 것이다. 아마 장자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수도 있다. 어쩌면 팔족으로 샀기 때문에, 아니면 축복기도를 받았기 때문에 장자권이 나에게 왔다고 알고 있었을수도 있다. 만일 그렇게 알고 있다면 아직까지 종교이다. 자기 노력으로 장자권 받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단의 장난감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은 전부 쓸데 없는것, 오직 하나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야 사단이 손 쓸수가 없는 것이다. 여하튼 장자권이 자기에게 있음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열심 체질, 자기 중심이 그 언약을 꺾었던 것이다. 그래서 언약이 힘을 못 쓰고 하나님과 씨름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 중심, 내 열심, 이런 것이 근본적인 영적 문제인 것이다. 우리 모두가 이번 주간에는 이런 영적 문제 완전해결되고 하나님과 하나되는 주간 되기 바란다.

## 2. 이스라엘

야곱의 종교성이 이렇게 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셨다. 야곱은 여전히 회개 안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안했을 것이다. 그 뒤에도 회개했다는 말 없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에서를 만났을 때 아무 문제 없게 했다. 33장 4절에 보면 서로 만나서 울었다. 뿐만 아니라 이름도 바꿔줬다. 니가 하나님을 이겼다. 이런 뜻이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나. 하나님이 저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름도 이렇게 바꾼것도 놀라운 일이다. 회개도 안했는데.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밤새도록 씨름을 해 주셨다. 허벅지를 치시긴 했지만 결국은 축복을 하셨다. 29절에 보면 나온다.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고 은혜이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 없으면 우리도 믿음 유지하기 힘들다. 하나님은 야곱이 큰 위기에 닥쳤음을 알고 찾아오셨다. 야곱은 하나님에게 와달라고 한 적 없다. 그리고 창세기 32:1-2절에 보면 하나님의 큰 군대가 있음을 봤다.

창세기 32:1-2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와서 역사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신 것이다. 언약의 삶이라고는 전혀 안 보이는 야곱에게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언약으로 살면 어떻게겠는가?

잠언 3:5-6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겠는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관여한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말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누구든지 이렇게 해야 한다. 우리는 누구든지 이렇게 뜻을 정해야 한다. 나는 언약으로 살겠다. 나는 나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겠다 뜻을 정하고 다니엘처럼 살아야 한다.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살아야 한다. 언약을 잡아야 한다. 언약으로 평생을 살아야 한다. 그것 말고 무엇을 살수 있겠는가? 사단을 어떻게 이기고 미래를 아는가? 언약 없으면 항상 하나님과 씨름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언약의 여정, 237의 여정으로 살면 씨름 없어진다. 미국, 남미, 다민족, 렘넬트 이렇게 살면 씨름 없어진다. 우리는 이것이 완전한 길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뜻을 정해야 한다. 언약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렘넬트들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면 기적이 일어난다. 부모가 할 일은 한 개 있다. 이 언약을 확실하게 심어주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동으로 역사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씨름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저주실 것이다.

아직 언약이 완전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해주시는 것이다. 야곱은 오늘 보면 언약이 완전하지 않았다. 오히려 언약 없이 사는 사람이었다. 그래도 기도하니깐 하나님이 결국, 어쩔수 없이 축복을 한 것이다. 야곱에게도 하나님의 결국은 저 주신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주실줄 믿는다. 그러므로 어려움 속에 있다면 용기 내어 기도하기 바라고, 최고의 길은 언약의 길임을 잊으면 안된다. 이것은 되어지는 길이다. 그냥 언약만 누리는데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길이다. 이것이 정답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바란다. 그래서 이 주간 다시 한번 그리스도 이 언약으로 깊이 들어가는 축복있기를 축원한다.